

빌딩 유리창 외장창... 가로수·신호등 쓰러져 '대혼란'

■ 르포... 블라벤 강풍에 초토화된 광주 도심

옥상 광고판 떨어져 나가 교통 전면 통제 10만가구 정전... 주택 파손 등 신고 폭주

28일 새벽 블라벤(BOLAVEN)의 직격탄을 맞은 광주시가지는 폐허로 변했다. 광주에서만 10만가구 이상에서 정전피해가 발생하고 도심 곳곳의 신호등과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졌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은 우산이 강풍에 속절없이 날아가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시민들은 뜰하게 굴러다니는 택시를 잡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광주시 동구 남광주교가 밀 사거리에서는 신호등 받침대가 이른 아침부터 부러지고, 서구 치평동 출리데이 인호텔 앞 삼거리의 신호등 지지대가 이주시개처럼 반토막 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오전 북구 삼각초교 인근에서는 가로수 서너 그루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에 휩쓸려 쓰러지면서 도로를 덮치자 출근길 차량들이 가로수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위험스레 곡예운전을 해야만 했다.

북구 무등도서관 앞에서는 지름 1m의 고목이 바람에 꺾이면서 주차된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덮치는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210여 그루의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뽑혔다.

서구 상촌동에서는 12m 크기의 입간판이 넘어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등 시내 곳곳에서 간판 120여개가 블라벤의 위력에 날아갔다.

또 한쪽에 쌓아둔 쓰레기봉투와 가로수 잎사귀가 강풍에 날리면서 음식

물찌꺼기와 휴지까지 날려 도로 곳곳이 쓰레기통을 방불케 했다.

동구 전일빌딩에서는 옥상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광고판(가로 20m x 세로 15m) 조각이 금남로 곳곳으로 떨어지면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이와 함께 인근 대형 빌딩의 유리창과 간판이 쏟아져 내려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간판, 창문, 주택 등이 파손되면서 광주시소방본부 상황실에는 시민들의 신고가 폭주했다. 하지만 봉화대기자가 10~20여명에 달했으며, 신고가 접수돼도 2시간이 지나야 출동이 가능할 정도였다.

또 이날 광주지방법원 402호, 403호 법정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수차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법정을 옮겨 공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구청 직원, 소방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두 1500여명의 비상인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 강풍에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스포티지 차량을 덮쳐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19대원과 통신사 직원들이 28일 목포시 죽곡동 한 건물 옥상에서 강풍에 쓰러져 위태롭게 걸터 있는 통신중계기를 긴급 보수하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태풍 알고도 미국 휴가

김종식 서구청장 외유 빈축

블라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광주시 서구청장이 해외 휴가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서구청에 따르면 김종식 청장은 지난 24일 7박8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휴가를 떠났다. 지난 24일은 초

대형 태풍 블라벤의 북상 소식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대비에 나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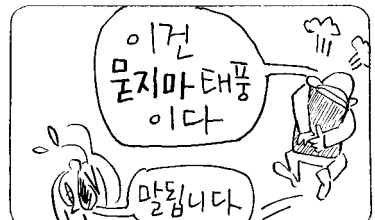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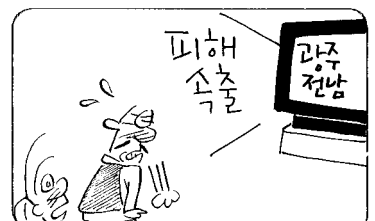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 기간 강풍대 시장이 "모든 관계기관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전남도도 도시자시로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부구청장에게 지휘를 맡기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오는 31일까지 현지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의 휴가에 따라 비서 등 구청장실 소속 직원 2명도 같은 기간 휴가를 떠났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태풍을 눈앞에 두고 김 청장이 휴가를 떠난 뒤 서구청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 태풍피해에 대비했다.

서구 관계자는 "김 청장의 미국행은 두 달전부터 계획돼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641) 김종두



"개인정보의 수사의견서 공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피고소인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나모(66)씨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8년 김모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주서부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수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친절한 도둑' 연락처 넘겼다 덜미

○"휴친 카드를 유휴주점에서 '흥청망청' 긁은 20대 남성이 흥에 겨운 나머지 여성 도우미에게 전화번호를 넘겼다 경찰에 덜미.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6)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5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임도(여·56)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 명품지갑을 훔친 뒤 같은 날 밤 10시께 화장실 한 유휴주점에서 임씨의 카드로 68만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도우미에게 연락처까지 친절하게 남긴 우스운 도둑"이라며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통신 두절·방파제 유실·낙과 텅굴어... 곳곳 생채기

■ '블라벤' 뒤따라 올라와 보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5호 태풍 '블라벤'은 27일 밤 한반도 최서남단 신안 흑산면 가거도를 통과해 한나절 만에 서해안을 관통했다. 하룻밤의 짧은 진로였지만 초대형 태풍의 위세를 과시하듯 하룻 지나는 길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28일 새벽 1시 태풍을 맞이한 가거도는 무시무시한 태풍의 위력에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통화가 끊기는 등 통신이 두절돼 피해상황마저 파악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께 목포 먼바다를 통과하면서 불어닥친 강풍에 넘어진 가로수와 떨어진 나뭇잎이 목포시의 주요도로를 뒤덮었고 찢겨나간

나뭇가지와 간판, 유리창으로 시내 전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30분께, 며칠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여수지역은 방파제 유실, 가두리양식장 시설 파손 등 태풍의 영향권에 들자 또다시 타격을 입었다.

오후 2시,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인천쪽으로 방향을 잡아 차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광주·전남 지역은 잠시 평온해지는 듯했다.

태풍의 뒤를 따라 함평·나주로 올라오자 망연자실한 표정의 농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주지역의 과수원에는 세찬

비바람과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배가 어지럽게 나뒹굴었다.

과수농가 황경림(여·70)씨는 "가뭄과 폭염으로 상품성을 잃은 배가 태반이었는데 낙과 피해까지 겹쳐 엄청난 데 덮친 격"이라며 "환장 하겠다"고 하소연했다.

바람이 잦아들고 오후 4시께 광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주변 들녘에는 진녹색의 벼들이 좌우로 흔들리며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영산강 승선보 주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비닐하우스에는 일부 농민들이 나와 이를 수습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물떼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인형하심께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기준전기요금(사용전량별 세비)세액	설치시 청구요금	월 납 요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0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성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